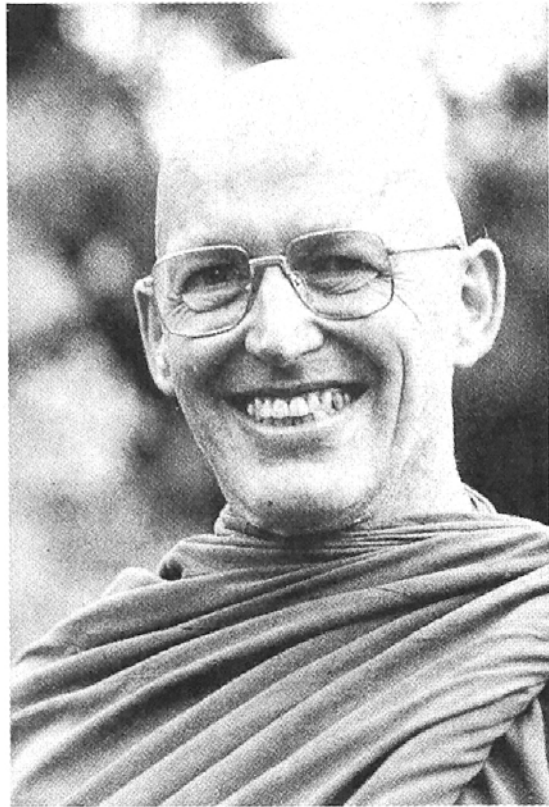


인터넷 지상법석

마음가집이 삶의질 결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의 한계에서 그대로 안주한다면 분명히 그릇된 삶이며 생각입니다. 우리는 심신의 동요를 수반하는 감정과 그것에 의해 생겨난 생각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심신의 감동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네가지 실천적 원리 즉, 사성제를 가르쳤습니다. 사성제란 고(苦)·집(集)·멸(滅)·도(道)를 말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의 도리를 불견전한 생각을 마음 속에서 일으키지 말 것, 설사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여도 계속 마음에 담아두지 말 것, 올바른 생각을 마음 속에서 일으킬 것, 만약 그런 생각이 생기면 계속 마음에 담지 않을 것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을 빌어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랑·자비·환희·평정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마음 속에 꼭 있어야 할 '승고한 존재'입니다. 사성제를 마음 속에 분명히 간직하고 있을 때, 지상에 불국토를 건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안 슈메도
佛 포레스트사원 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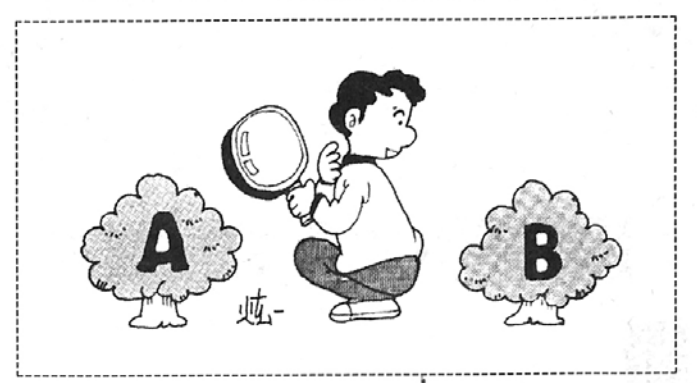


마음에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있었습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대기에 한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형상을 하고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가 구별되고 각각 다른 객체로 보여지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속적인 수행을 한다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수행은 우리가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어김없이 그 생명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관계가 이와같은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보죠.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종종 불견전한 생각을 품고, 매일 시끄럽게 떠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어느순간 자신이 살고 있던 사람을 자식이 착하지

역력

· 1942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1961년부터 4년동안 동아시아를 여행하며 명상법을 익히고 1976년 스리랑카의 고승 아난다메타로부터 수행을 받고 불교에 귀의했다. 그 후 세계 각지에 흩어진 포레스트 사원을 돌며 수행하고, 현재 영국 웨섹스 포레스트 사원에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색(色) 즉 물질계 전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이 물질계를 관찰하는 관찰자마저 관찰대상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에서 나를 분리시켜 자연을 대상으로 놓고 관찰하게 됨으로써 관찰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을 창조한다는 보어의 관점은 아인슈타인(Einstein)으로부터 반박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보어의 '반야심경'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심경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인슈타인도 '불생불멸'과 '부중불감'이라는 말에는 동의 했지만 '불구부정'은 거부했을 것이다. 여러번에 걸친 논쟁에서 보어가 이겼지만 1935년 아인슈타인, 부돌스키, 로젠 세사람은 보어의 상보성원리에 입각한 자연관을 반박하는 사고실험(思想實驗)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EPR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해낸 것이다.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

보어의 상보성원리 반야심경을 지지 물질계는 하나이나 관측이 분리·창조

데 요약하자면 이렇다. 모든 물리량을 측정하여 그 상태를 완전히 알고 있는 입자가 붕괴하여 A와 B라는 입자 둘로 되었다고 하자. 기본적인 물리량은 보존되므로 즉 불생불멸이므로 A를 측정하면 B에 관한 물리량은 측정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핀(Spin)이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측정하면 +1 또는 -1이라는 두개의 값중 하나만을 갖는다. 따라서 처음에 스핀이 0인 입자가 붕괴하여 A와 B로 나뉘었다면 A의 스핀을 측정하면 B의 스핀값은 B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A가 +1이면 B는 -1 이런 식으로 B를 관측하지 않더라도 B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관측행위가 관찰하는 것을 창조한다는 보어의 관점은 틀렸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다. 더군다나 A와 B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즉 몇 광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A가 +1을 나타내면 B는 -1이어야 한다. 보어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A를 측정하기 이전에는 A가 +1인지 -1인지 알 수 없고 A를 측정하여 +1을 얻으면 그때 비로서 B가 -1임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맞겠단이나 떨어지게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이 관측을 하자마자 모든 것이 즉각 결정되고 창조되는 것이다. 마치 이심전심으로 B가 A에서 일어난 일을 즉각 알아낸 것과 같다.

아인슈타인과 보어에게 누가 옳은가 하는 실험은 1982년에야 이루어졌는데 보어가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체가 하나이고 관측행위가 창조한 것을 관찰자가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측자와 관측대상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분리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물음이 남게 된다. 무엇인지 분석한다면 벌써 하나를 둘로 나눈 것이므로 올바른 답을 알 수 없다. 무슨 답을 얻더라도 그것은 창조해낸 것일 뿐이다. 분리되기 이전의 것은 여러가지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는 허상일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공(空)이라고까지 하는 하겠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다. 관자재보살만이 불구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모든 객체와 자신의 인연 불줄 알면 이타심생겨

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존재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갖는 고도의 정신적 사회를 구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간직한 생각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여기에 신뢰가 생긴다면 서로를 걱정하며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제 삶의 언저리에 놓인 수많은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성제의 첫째 덕목으로 사랑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인의 관계에서 통용되는 감정인 세속적인 사랑을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에 대해 좀더 깊이 사색한다면, 모순되지 않게 서로 공존하려는 두 객체간의 절대적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같은 사랑이 세속적인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신화'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은 무형·무색·무취입니다. 마음에 담겨진 내용물이 그 마음 자체라고 했으니깐요. 만약 우리가 마음에 사랑을 한

“사랑을 느끼면 마음이 사랑되듯
사성제 늘 간직하면 불국토 이뤄요”

그루 심을 수 있다면 거대한 숲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해 조건없는 사랑을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타심을 느끼기 하지만 이것을 이량있는 마음, 즉 거대한 숲과 같은 폭넓은 마음으로 까지 이끌어낼 만한 교육 혹은 사회적 장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사회적 장치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이량있는 마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타심을 키우는 방법으로 흔히 선택하는 노력은 단지 스스로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다거나 혹은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 사랑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

시후 자신이 품고있는 사랑이 두려움·혐오감 등의 좋지 못한 감정과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객체에게 쏟아야 할 사랑이 단지 몇몇 친숙한 객체에게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열리지 않는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모든 객체와 자신이 맺고 있는 인연을 불줄 알아야하며, 이를 통해 편협된 사랑을 더욱 키워 모든 객체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않고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동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 이타심을 키우고, 이타심은 타인을 마음에 담고 이해하도록 하니까요. 결국 모든 객체를 한 마음에 안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 될 수록 분명 우리는 고도의 정신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을 혐오한다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는 이를 크게 문제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타심에 타인을 멸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연법에 따르면, 한 호흡을 하는 동시대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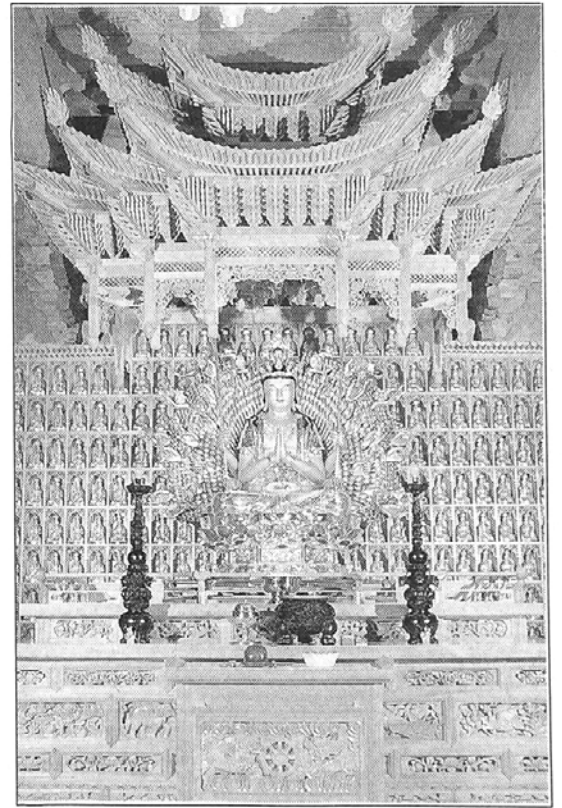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심상에서 분별심을 없애고 이타심을 바탕으로 두려움과 혐오감이 없는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원력이며, 우리는 매일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 사무실 (02) 738-8447~8
- 공장 (051) 804-8907
-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